

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39호
2025.12



한량윤씨_ 이 곳에도 낭만은 없었다

여섯번째 원고

김혜현_ 인간의 직립보행과 리얼리티

세번째 원고

오종원_ 불량연애_ 도덕적 딜레마 속 재미에 대해

서른여섯번째 원고

이채연_ 새 작업 소개: 파부인의 진천에서 장보기

서른다섯번째 원고

김희진_ 달리 아닌

스물여섯번째 원고

이 곳에도 낭만은 없었다

한량윤씨
계으른 창작자



나: “아저씨 나 , 알아요?”

C 아저씨: “...!!” (당황한 표정으로 위아래로 훑어 본다)

나: “저는 아저씨 오늘 처음 뵙는데, 왜 저한테 0점이라고 말씀하세요?”

C 아저씨: “...” (한껏 동공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표정)

나: “다음부터는 저희집에 오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C 아저씨: “...”

우리 집에서부터 꽤 떨어진 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오토바이까지 타고 오신 C아저씨.

앞집 아주머니와 두 분이서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앞집의 아주머니는 여러번 우리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아저씨와 함께 오셨음에도 큰 경계를 하진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올리고 마실 것을 좀 드리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 주섬주섬 캔 커피와, 빨대를 꽂아 마시는 과일주스를 드렸다.

아주머니는 늘, 처음부터 바로 받는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나는 드릴 때마다 실랑이를 벌여 야 했고,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걸 드셔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겨우 받으시곤 하셨다. 그 사이, 같이 오신 아저씨는 공사 감리를 하듯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셨고 나는 아주머니 곁으로 붙어서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넘지시 여쭸다.

아주머니 말씀으로 아빠도 아시는 관계이며, 먼 친척 뺄 쯤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 공사하는 걸 보고싶은데 혼자 오기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같이 동행을 요청하여 오시게 되었다고 짧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속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동네의 주민이고 아빠와도 알고 계시는 사이라는 정보가 있기에 더욱 경계심을 풀어 작업과정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다.

“사실 모든 작업들이 처음 진행하는 거라 굉장히 부족해요, 서울에서 시간이 날 때 마다 와서 하고있어요~!”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띠는 한옥의 보가 있다. 지금처럼 나무를 직선으로 재단하는 연장이 발달하기 이전에 만든 보는 나무의 두께와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있음을 누구라도 알아차릴 정도이다.

“이렇게 멋있는 나무로 보를 해서, 이 집이 예전엔 부잣집이었지~”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그럼 좀더 편안하게 보셔요~” 했다.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틀자, 본인의 집에 지금 벽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최근에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는데 많이 남았으며 지금 여기에 쓰인 벽돌(회벽돌)보다 좋은거다. 라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래서, “아~ 그래요? 맞아요, 붉은 벽돌이 좀더 비싸죠..!” 했더니,

“그럼~ 좋은 벽돌이지! 그럼, 가지고 가서 써라~” 하셨다.

예전엔 가늠도 못했는데 집을 지으면서 몰탈과 시멘트, 흙과 자갈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1포대에 대략 7천원에서 비싼 건 2만원사이의 재료값이 들어가고 있었다.



몰탈과 시멘트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벽에 바르고 땅에 부어야 된다는 사실과 만만치 않은 비용에 돌 하나도 귀하게 사용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 낯선 이웃집 아저씨의 호의에 감동을 했다.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은 어느정도 되죠? 정말로 다 주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 사라고!”

“아..!;;; ”

나의 그동안 경험상의 뉘앙스에선 마치 그냥 가져가서 쓰라는 말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팔겠다는 말을 하신 것을 잘못 알아 들은 것에 굉장히 민망하고 머쓱해졌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내가 뭐 살 줄 몰라서 남은 재료를 팔려오나?’ 하는 마음에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붉은 벽돌은 필요한건 아니에요 그냥 주신다고 하시는 줄 알고 받으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때 살게요”라고 웃으며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냥 주냐?”라고 이어지길래.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하하..” 하며 웃어 넘겼다.

‘본인 집의 벽돌을 팔지 못해서 화가 나신 건지? (현재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

다시 집밖으로 나가시면서
“(벽돌)조적을 누가 했나? 이거 영.. 돈 쓰고 사람 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이 되나?”
하신다.

“아..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안되요.. 저희도 사람 쓰고 빨리 끝내고야 싶죠..” 했다.

그러니, 조적한 벽돌을 보시며 혀를 차며, 손으로 x자 표시를 보이더니,

“이거 완전 빵점이야, 땡!” 한다.



처음하는 벽돌 조적

물론, 정확히는 울퉁불퉁, 비뚤어진 벽의 마감이 정말 부끄럽다. 조적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아차릴 정도로 정말 못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얘길 이 아저씨에게 들어야 하지?’



못생긴 벽, 작업과정

그 밖에도 수박농사를 짓는 A아저씨가 있다. 그는 선한 인상에 집도 가까워서 여러번 우리의 작업과정을 구경하러 온 이후,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던 관계였다.

하지만 하루, 하루가 바쁜 와중에 뜯금 없이 등장하여

“집주변에 나물들 지금 따야 될 시기인데 이거 얼른 따야된다” 라던지, “여기 문은 어떻게 할거냐?”, “이건 (장비)는 얼마나?”, “작업복은 따듯하냐?” 등등.

작업하는 옆에서 쫓아다니며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호기심을 채운 후에는 마당에 침을 한번 탁- 뱉고 유유히 떠나버리는데 얼마나 눈치가 없는 양반인지, 귀찮아서 대답을 단답형으로 해도 본인이 궁금한 일이 생기면 역시나 찾아와 되 물기를 수 차례 반복했다.

그리고 뒷집에 사는 B아저씨는 몇 년 전에 타 지역에서 살다가, 집을 사서 5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했고 귀촌하였다고 했다.

어찌나 사투리 억양이 세고, 목청이 큰지 평상시에도 말의 소리가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하는 사람인데, 역시나 그의 행동도 거칠고 사리분별을 못하여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 “아니,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 이래 해서 언제 다 할라고!!” 하며 큰 소리를 냈는데, 참다, 참다가 화가 난 남편이 “우리집에 일을 도와주실거 아니면 신경 끄셔라.” 하며 쫓아 낸 적도 있었다.

일단,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야외에서의 육체적 노동에 매일매일 지쳐있는 상태였다. 돈과 시간, 게다가 환경까지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변해가는 집의 모습을 희망하며 몰입할 뿐이었다.

막노동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주 흐름이 끊기는 것은 굉장히 힘을 빼지게 하는 것이다. 헐벗은(?) 집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은 요리조리 흡집기 바빴다.

아빠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곳은 파평윤씨의 집성촌으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예의있게 인사를 해야한다”고 당부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난 그 어느때 보다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기꺼이 반갑게 맞이했었다.

논과 밭, 얕은 야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담과 대문이 겹겹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농가주택. 오가는 사람도 적어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가끔 동네 떠도는 개들 짓는 소리만 들리는 정말 적막에 가까운 곳.

그러한 곳에서 웬 낯선 젊은 이방인 부부가 ‘뚝딱’거리며 ‘뚝딱뚝딱’ 하고 있으니, 심심했던 마을에 자극적인 장소로 소문이 났을 것이다.

39 2025.12



아주머니가 주신 오징어가 들어간 부추 부침개



맛없을 거라던 꿀맛 김밥

굳이 이러한 일들을 되짚어 생각하면서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 그리고 ‘관계’인데 도시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면 다듬어지지 않아 날 것 같은 투박한 표현과 세련되지 못한 화법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했다.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에 대해 사려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딱 거기 까지의 소통방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시선과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하는데 식사를 어떻게 챙기는지 걱정하시며 직접 전이며, 김밥을 싸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수줍게 내어주시는 아주머니, 밤 늦은 시간에 출출할까 싶어 가져왔다며 땅콩을 삶아오셔서 먹고 자라고 방문을 두드리시는 할아버지, 서울갈 때 가져가서 먹으라고 밭에서 이것 저것 따온 작물들을 내려놓고 가시는 앞집 아주머니, 매번 “이거 맛이 없는데 먹을 수 있나?” 하시고는 주시는 음식들 마다 너무 맛있어서 우리끼리는 “아주머니들은 또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지 ㅋㅋ?”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었다.

사실상 시골 마을에도 낭만은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먹고, 일하고, 잠드는 곳이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직립보행과 리얼리티



김 혜 현

4년차 갤러리스트

신현정 작가와 나는 2021년 여름에 갤러리를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연이 닿았다. 시립 도서관에서 근무중이신 과장님 한분의 소개로 그 당시 00시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중이던 신현정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 첫 만남에서 작가는 전시 작품을 설치 중이었다. 작가의 모든 작품은 매듭으로 자연물을 엮어서 만들거나 그 자연물 표면에 펜으로 드로잉을 그린 것들이었다. 미술관에 가야 볼 수 있을 만한 특이한 설치작업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는 9월이었다. 10월에 레드부츠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그때만 해도 나는 초보 갤러리스트라 무작정 전시초대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작가님은 기뻐하면서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첫 해 우리는 함께 전시를 했고, 2년 뒤 두번째 개인전 그리고 3년 뒤인 2026년 5월에 세번째로 레드부츠에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아트페어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을 때 신현정 작가는 아트페어에 찾아와 내년에 작업할 작은 작품 하나를 포장해와서 직접 보여주었고, 이미 완성해 둔 메인 작업의 사진과 전시되는 방식을 촬영한 영상을 담은 usb를 건네 주었다. 전시를 앞두고 1년 전에 모두 준비한 것들이었다. 미리 준비해놓고 나와 상의를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작가들이 전시 직전까지 작업을 하다가 메인 작업을 망쳐서(남들이 보면 망친 줄 모르지만, 작가와 나는 알고 있다.) 서로 민망했던 경험이 몇번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뒤로는 작가들에게 작업을 미리 준비해놓기를 조언하곤 했다.

계획을 거창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해서 전시 직전까지 작업을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작가들이 다들 생업이 있기도 해서 시간여유가 없어 힘들겠지만, 평소에 작업을 꾸준히 해 온 작가들은 작업양이 충분하다면 전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진다. 전시장소에 맞게 30점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전시 시작하기 몇개월 전에 40개 정도는 작업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전시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작업양이 충분치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모든일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다 해두고, 작가님은 작가님대로, 나는 나대로 작업노트를 들여다 보면서 다음번의 전시를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작업은 늘 레드부츠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갤러리스트인 나는 참 복이 많구나 싶다. 물론 갤러리가 전속작가로 작가를 초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나는 전속작가를 초대할 만큼의 역량은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작가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개인전과 작가 워크샵 등 여러번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서 지난 몇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신현정 작가는 작업과 함께 늘 작업에 관련된 시를 직접 써왔다. 시를 먼저 쓰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가의 시들은 하나의 큰 주제를 향하고 있었으며 그 언어를 통해 나는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번거롭겠지만 시는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다듬어 듣다. 작가는 미국에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에 쓰이는 단어 하나도 꼼꼼하게 교정을 받아둔다. 그렇게 작업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상. 온전히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소중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다. 모든 작업의 시작은 아마도 명상에서 오지 않았을까.

두 손 두 눈_ 신현정 (HARU)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것은
두 손으로 겨손을 집어 올리기 위해
두 눈으로 잎맥 사이 초록의 명암차를 응시하기 위해

척추가 땅과 직각을 이뤄
가슴이 정면을 향하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경중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기 위해

인간이 창백한 고통을 겪는 것은
가려있던 공감을 발견하기 위해
검푸른 두레박, 손 닿지 않을 우물에 이르기 위해

매일 뜨는 해와 달을 마주봐,
같은 하루에 미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
반복을 이용해 반복을 멈추기 위해

지속한다면
나아갈 의지는 어디에든 스며있어
허리 숙여 두 손으로 주워 올리기 위해.



신현정 개인전 2021년

레드부츠 갤러리2

2021년 전시장에서 만났던 시들 중 한편이다. 이번에 다시 만날때 작가는 이 시를 종이에 프린트해서 직접 만든 매듭팔찌와 함께 나에게 주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 마음이 허전해질 때마다 이 시를 읽고 또 읽고 있다. 내가 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종종 잊어버



신현정 개인전 2021년
레드부츠 갤러리3

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글을 통해, 노래를 통해,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통해 다
시금 각성한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중 단 하루도 같은 날
이 없다.

레드부츠 갤러리는 2026년에 2-6월까지 13번 정도의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시 공
간을 함께 운영해 줄 단체의 멤버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6월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체활동을 통해 함께 전시를 기획하면서 협력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시공간
이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는 물리적 공간 없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5년 동안 전시장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그 공간이 없어지면 갤러리스트인 난 어디로 가야할까. 나는 작가들과
계속 협업을 할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렵다. 요즈음 나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그 두려운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다. 언젠가는 한번
쯤 겪어야 할 일이지만, 지난 8년 이상 의지해 온 내 공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
캄하다. 그럴때마다 나는 다시 예술가들의 글 속으로 도망을 친다.

“예술가의 역사는 예술가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도전의 역사다. 그 도전이란 환경적 요인이 미리 결정해 버렸거나 빼앗아 간 것들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창조적파괴를 이끄는 수백만 가지의 요인이 있다. 예술가나 식물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의 요구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의도와 고유의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자신을 둘러싼 독창적인 요소에 관한 것이며, 예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압도해버리는 이야기다. 때로 예술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도록 일시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자신을 위장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위장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술가의 창조적 진실> 마크 로스코

신현정 작가도 시를 먼저 쓰고 작품을 만들었고, 마크 로스코도 이 글을 쓰고 난 뒤 그의 걸작들을 완성했다. 마크 로스코는 예술가의 리얼리티는 그들 고유의 세계관과 관점으로 관람자와 소통하기 위한 그림을 위한 소재였다. 자신만의 리얼리티 없이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것이라 여겼다. 예술가는 작업을 위해 철저하게 리얼리티를 탐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신현정 작가의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겪는 창백한 고통은 가려진 공감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가는 삶속에서 늘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겨울에 접어들면 아이들은 체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린다. 방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집 아이들도 독감이나 열감기를 꼭 앓곤 했다. 가족들이 모두 독감에 걸려서 2-3주 동안 계속 병간호를 했던 기억도 꽤 있다. 그 와중에 밥도 챙겨 먹어야 하고, 집도 청소해야 한다. 햇빛을 못보고 며칠동안 아이들을 병간호 하면서 집 안에만 갇혀있게 되면 처음에는 몸이 축이나고 곧 정신도 희미해 진다. 겨울이 끝나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 온다. 겨울은 늘 나에게 창백한 고통들 중 하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이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사슬로 손이 묶이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마음의 가장 깊은

39. 2025.12

깊은 곳으로 내려가 왜 내가 이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 하루에도 몇번 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다. 제자리 뛰기를 하듯 매번 나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바닥에서 다시 헤엄쳐 나온다. 어쩌면 답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답이었을지 모른다.



신현정 개인전 2023년 평촌
아트홀



신현정 개인전 2023년 평촌아트홀2
(작품 설치중인 신현정 작가)

모든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리얼리티를 갖게 된다. 그것은 자신만의 유전자, 자신만의 사주와도 같은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 우주, 그리고 타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유일무이한 리얼리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신만의 소명과 개성을 가진 삶.

그림, 예술작품은 글과 다른 형태의 자기표현이다. 관람자들은 예술가의 글과 그림에서 각자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경험한다. 그것은 서로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삶과 글과 말과 행동 그리고 작업까지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통일감을 이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나는 작가들이 과정 속에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응원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이번 삶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미 고인이 된 예술가들은 기록된 자료를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연대기 순으로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속도감있게 그들의 작업을 살펴보면 영화한편을 본 것처럼 명확하게 스토리가 흘러간다. 내 삶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어 고통스러운데, 고인이 된 타인의 삶은 고통 없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작가들, 어쩌면 평생을 함께 해야하는 몇몇 작가들은 내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감동과 고통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그들의 시는 내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그림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신현정 개인전 2023년 평촌아트홀2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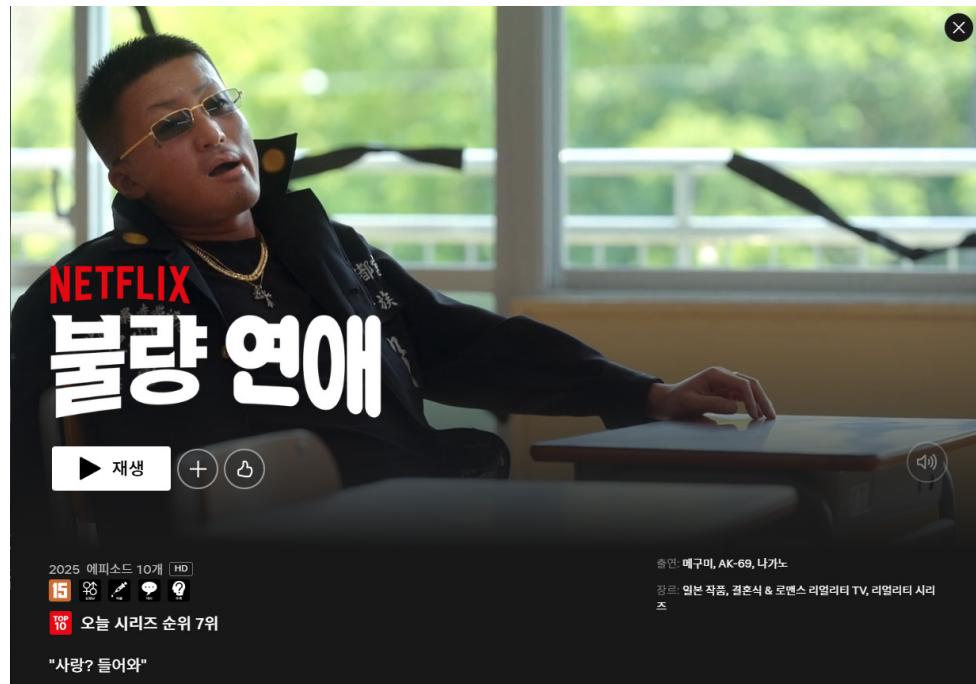
39. 2025.12



불량연애_도덕적 딜레마 속 재미에 대해

오종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인 불량연애

(사진출처 및 저작권 : 넷플릭스)

지금 붙잡고 있는 글들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원래 이번 12월호에 실을 글은 25년에 대한 참담함과 안타까움에 대해 쓰고 있었다.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글도 아니었고 내 스스로도 의미가 있지는 않은 느낌이었다. 참고로 기존에 쓰던 신혼여행 기록은 그냥 혼자만의 추억으로 접어두게 되어서 나중에 다시 압축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크게 재미있는 이 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그러다가 문득 <불량연애>라는 프로그램이 근래 인기라는 솟츠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불량연애가 뭐지? 일본 양아치 출신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이란다. 처음 솟츠나 릴스로 발견했을 때 야쿠자들이 나와서 뭔가 진지한 구애 같은 것을 하는 모습이 비주얼 충격처럼 다가오기도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연애프로그램, <나는 솔로> 같은 것들이 아무리 인기였어도 나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재미가 있었긴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에 어떤 괴로움을 느낀다. 표현이 과할 지 모르겠지만, 연애라는 행위를 통해 그 인간을 관찰하고 재미를 찾으려는 모습에 약간의 자괴감 같은 게 있지 않는가.

관음을 넘어선 무엇인가. 관찰하는 이와 관찰 당하는 이로 구분되어지는 프레임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 출연자들을 지켜보게 되는데 나는 그것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건 꼭 연애프로그램만이 아닌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미디어들이 그래왔지만, 나의 경우에는 특히나 연애 프로그램이 그랬다. 아무래도 사랑과 애정이라는 것이 조금 성스럽게 인지화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하게 출연자들의 설레는 감성을 대리만족 하는 정도라면 나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더욱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순기능이라 생각하는데) 매회 빌런이 등장하고, 아예 이번 회차에는 누가 빌런일까 농담처럼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불편한 것이다. 그 빌런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어떤 대중에게 콘텐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대중이 그것을 나름의 도적적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니 이런 관찰 예능을 보는 것이 가학적으로 느껴 지기도 했다. 더욱이 요즘의 연애 예능은 출연자들이 있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관찰하는 패널이 따로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패널들의 반응이 더욱 시청자들의 가치 판단을 흐트려 놓는다고 생각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른 남성 출연자들을 보며 화를 내는 패널을 따라, 그 방송을 보는 나도 따라서 화를 내게 된다. 패널들로 인해 1차로 여과된 감정이 시청자들을 죄책감이나 어떤 감정적 윤리에서 다소 벗어나게 만든다. 나는 이런 과정을 일야 옥해주세요 프로세스라고 표현하고는 한다. 시청자들은 결국 여과된 그 감정들을, 마치 순수 증류된 메탄을처럼 받아들이며 감정적인 고양 상태를 가진다. 그것은 일종의 쾌감을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출하는 것이다. 마치 매운 떡볶이를 먹고 괴로워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그러나 문제는 매운 음식은 캡사이신과 탄수화물이겠지만 미디어속에 나오는 이들은 사람이라는 인격체라는 것이다. 시청자를 자극하는 목적을 위해 미디어는 한 명의 인간을 재단하고 가공하여 시청자에게 제시한다. 나는 나 역시 그런 과정에서 도파민을 분출해내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못내 불편해 있었다.

서문이 길었지만 불량연애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방송 역시 그런 감정을 터트려 도파민을 총 족시키는 구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제는, 이 방송은 관찰을 통한 시청자의 고양상태를 아예 대놓고 의도하며 장치화 하였다는 것이다. 괜찮아. 화내도 돼. 어이없어 해도 돼. 방송에 출연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아름답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이들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이 마치 세상에 뒤쳐진 것처럼 표현이 된다. 그래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기보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처럼 연출이 된다.

출연진들은 타투는 기본에 방송 전제에 음주와 흡연을 거의 권장하다시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어떤 인원들은 소년원 출신이라고 한다. 그 기간을 보면 결코 경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령 모 출연자의 경우 소년원에서 2년을 있다 나왔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이 정도의 형량이라면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일 수 있다고 한다. 결코 어느 하나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쉬이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이다.

더욱이 방송에 나오는 장면도 그렇다. 첫 장면부터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두 남성 출연자가 나오자마자 시비를 붙는 장면이다. 시작한지 몇 분이 채 안되어 서로 너는 뭐야! 라며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또 예쁘다고 인기가 많은 출연자가 특정 출연자를 상대로 죽일듯이 짜려보더니 물을 뿐린다. 패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들을 보며 웃는다. 이것이 일본의 만담 중 바보 같은 상대를 놀리는 촛코미 역할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출연자들을 마치 이들을 어린 아이 대하듯 멘트를 친다. 순수한 어린 아이가 아닌 어리숙한 이를 대하는 것처럼.

결국 이 프로그램 또한 관찰 예능이라는 영역에서 시청자가 품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방향성을 극대화 시킨다. 특히나 출연자들의 행동은 다소 과잉 되어있다. 이는 출연자들이 사회로부터 응합될 수 없는 이들이 것처럼 지속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불량 문제, 특히 야쿠자 문화 같은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이들을 표현시키며 지속적인 평가 절하의 상황을 연출한다. 저렇게 사회적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 음지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햇빛 아래에 나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웃는 행위가 가진 모종의 윤리적 딜레마를 희석한다. 저렇게 뒤쳐진 행동을 하는 것은 저들이 불량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지점 정도로는 깔깔 거려도 돼. 프레임 밖에서 프레임 안에 가지게 될 일종의 양심적 가책을 상당히 줄여준다.

그리고 회차가 진행될 수록 기술이 나온다. 단순히 과거의 범죄자들을 이지매 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방송은 매화 진행될 수록, 거친 것은 순수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쌓아 올린다. 드라마로 조금씩 포장되어간다.

출연자들이 애정이라는 감정을 표현해 가기 시작하며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 마냥 표현이 된다. 그의 불우했던 과거사에 상대의 존재를 대비시킨다. 프로그램의 방향 상 불량과

불편함이 과잉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들의 로맨스는 부각된다.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캐릭터들은 출연양이 줄어드는 기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전통적인 클리셰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한 과거를 가졌던 인물이, 지금도 사회의 보편적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물도 결국 사랑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전통적인 클리셰기 때문에, 방송에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 드라마에 홀딱 빠져 있게 된다.

타투로 온몸을 뒤덮은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마치 고릴라 마냥 여성들에게 존재감을 내비치던 모습은, 곧 골목대장이었던 꼬맹이가 수줍음을 품은 애처로운 상으로 변해간다. 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모습이나 갈등이나 실수하는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연민을 불러낸다. 어느덧 이들의 캐릭터에 빠져들어간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여서 이중에 마음에 드는 인물을 고르고 응원하거나 혹은 마음에 들었다가 배신감을 느낀다던가, 혹 저런 타임은 마음에 안든다면 그 이유를 풀어놓는 등 어느덧 미디어와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해 간다. 아 이 어리석은 중생이 고난을 통해 행복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방송의 패널이나 시청자들이나, 그리고 나 또한 프레임 밖에 안락한 쇼파에 앉아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본다.

최종화로 갈수록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닌 사랑을 위해, 아니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한 개인이 되어간다. 시리즈의 초중반에 그들을 비소하고 냉소적으로 봤던 시청자들은, 이제 이들을 품어줄 기회가 오는 것이다. 아 반감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다. 정말 노골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듈다. 다소 꺼려질 정도로 유도된 그들의 캐릭터는 전혀 알 수 없는, 그저 상상만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인간사를 극복해 나가며 사랑을 찾아가기에 우리는 어느덧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최종화를 놔두고 있다. 최종화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심지어 최종화에 대한 스포일러까지 의도치 않게 알게 되었지만 보고 싶지 않다. 사실 간생 같은 과정까지 바라지도 않았다. 아니 그런 광경을 보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았다. 너무나도 뻔하지 않는가. ‘과거가 있는’을 매개로 삼아 그들이 매도되는 상황을 통쾌하게 봐놓고 어느덧 너를 인정해! 행복해야 해! 를 바라고 있는 내 마음이란.

사실 이런 프로그램 또한 나름 각본으로 각색되는 미디어라는 것을 인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들의 캐릭터를, 나와 주변의 인간상으로 대조해가며 감상하게 된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재미와 나아가 감동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교묘한 이야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도 뻔하게, 우리는 왜 타인에 대해선 지극히 너그러워지고 그들의 성장기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얻는 것인가? 저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누군가에게는 용납 할 수 없는 인간이고 또 어딘가에서는 불편함을 끼치는 인물일 수도 있음에도, 그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 과정들에 나는 한 인간으로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 참 묘하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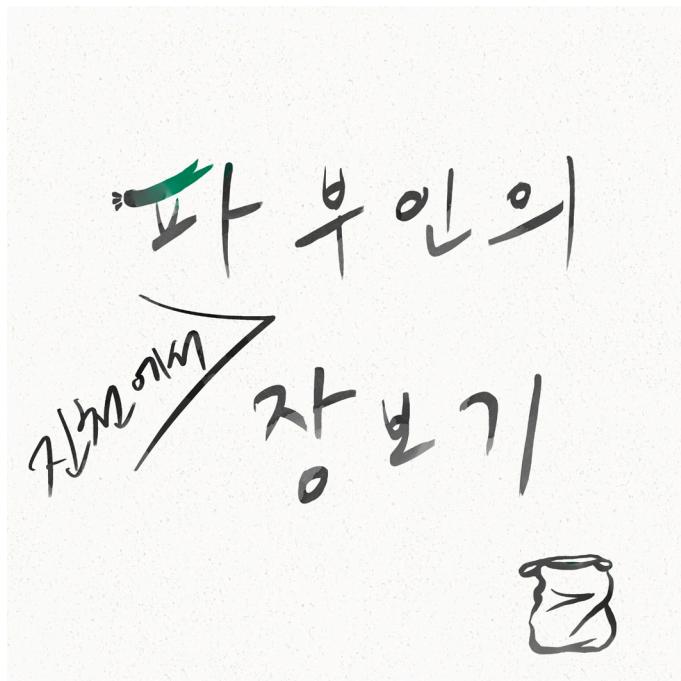
글을 마무리하며 최종화를 일부로 안보고 있는 지금, 나는 나름 응원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의 삶이 잘됐으면 하는 묘한 훈훈함으로 핸드폰을 놓지 못하게 된다. 🐷

새 작업 소개: 파부인의 진천에서 장보기



이 채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이번호에는 시각예술작가로서 새롭게 시도한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Ai를 활용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기획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작업하였다. 기획전을 하게 되면, 일정에 맞추어 약간 강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평소 목적이 없어도 꾸준히 소소하게 작업을 해왔지만 가끔은 이렇게 과제로 주어지는 작업이 좋기도 하다. 늘 하던 방식대로만 작업을 하면 빛밋하고 따분해 질 수 있는데, 과제라는 임무는 새로운 관심사와 도구를 가져다 주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해 동영상 만들기라.....요즘 Ai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가 된 존재이지만, 아날로그적인 40대 중반의 아줌마인 나는 Ai가 머나먼 우주 어느 미지의 별에서 온 전학생 같아서 아직은 친하게 지내기가 어색하다.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그 전학생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서, 동태를 주시하며 경계하고 가끔 슬쩍 쳐다 보았다. 저 놈에게 당하기만 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지 말자며 말이다. 사람중에서도 베스트 헛점투성이 인간이기에 경계하는 것 이겠지만....

파부인의 진천에서 장보기

내용:

나의 분신이자 자존의 상징인 장바구니에서 솟아 오른 ‘파’ X 지금 삶의 터전인 진천에서 만난 매력적인 ‘농산물’.

작업노트:

진천에 살면서 인상적인 점은 농산물이 가까이에 생산되고 있다는 것 이였다. 자연스럽게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더 보게 되고 먹게 되면서 생김새에 매력을 느꼈다. 먹거리들을 많이 보면 마음이 넉넉하고 넓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진천의 풍경은 웬지 풍요롭게 느껴졌다.

전통 민화에서 과일이나 채소, 곡식 등이 그려진 것은 풍성한 삶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색을 반영한 농산물이 그려진 작품은 작가가 살고 있는 곳을 표시하거나 그 장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어 현실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주어 완성도 높은 소망을 보여 준다. 나의 동영상 작업 역시 진천 농산물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이자, 이 고장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상생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수묵 목판화-영상 작업의 이유:

영상작업에 앞서 수묵 목판화로 먼저 작업했었다. 목판작업의 스케치를 컴퓨터와 패드로 최대한 완성작에 가깝게 그렸다. (어느 공모심사에서는 스케치와 완성작을 구분하지 못했다... 훗) 이 스케치들이 밑작업으로만, 컴퓨터 폴더에 남아 있기는 아까웠다.

수묵 목판화는 동양화 물감으로 농담표현을 살려 찍는다. 칼맛과 물맛, 동양적인 느낌은 채소 과일 등의 자연물을 표현에 어울리고, 단순하고 간결한 판화의 맛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싶었다. 영상작업은 전시 장소와 상관없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 작품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작업 과정:

1. 아이패드로 수묵 목판화 밑작업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변형, 추가하여 애니메이션용 그림 27개를 그렸다.
2. 1번의 그림으로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에서 5초 짜리 19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다.
3. 2번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불필요 한부분은 잘라내고, 속도를 조정하여, 연결했다. 이런 편집과정을 거쳐 총 1분 22초의 결과물로 만들었다.
4. 동영상의 분위기와 시간을 토대로 음악생성 ai인 suno에서 음악을 제작했다.
5. 다시 편집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동영상에의 길이에 맞게 음악을 넣었다. 추가로 영상음 직임에 맞는 효과음을 고르고 조정하였다.

*ai에 넣은 프롬프트는 셋 gpt의 도움을 받았다. 



그림2_파삼위일체, 2025, 종이에 목판



그림3_사용된 그림

달리 아닌

김희진
노동자



달리 한 몸이 아니다. 내 피부에 붙은 곰팡이와 곰팡이의 문장과, 문장에 서린 금속과 금속의 뼈서랍과, 벗겨진 매트리스에 들끓는 폐포, 그 위를 흘러내린 콜라의 검은 체액과 낯설지 않은 오염들, 흔적으로 이루어진, 배설되어 여러 계/계통이 한데 엉켜 서로를 부패시키고 동시에 되살리는 그런 계보의 사람이나 그런 계보의 말이 각 신체를 자르고 이어붙이고 이룬다. 나를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때조차, 그 이름은 바늘처럼 박혀 들어온 다수의 혀였다. 하나의 말이 아니라 말들의 시체, 시체들의 발음, 발음의 그림자인듯 하다.

바닥에 금은 아침의 무게를 조용히 받는다. 창 쪽 선이 약간 늘고, 문 쪽 선이 아주 조금 물려앉는다. 두 선 사이(그들은 평행하지 않다)의 얇은 홈에 먼지가 먼저 눕고, 발뒤꿈치는 그 눕힘에 기대어 천천히 기울 뿐이다. 기울어진 곳은 차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만큼 차가워진다.

모서리의 종이는 한 겹만 들어 올린다. 벽과 종이 사이로 공기가 스며 못머리를 아주 약하게 흔들고, 빼걱은 반쯤 삼킨 채로 귀퉁이에 걸린다. 들린 가장자리에서 곰팡이의 걸이가 늘게 번져 문양을 시작하고, 그 문양은 아직 방향을 고르지 못해 한곳에서 머문다, 그럼에도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퍼져가는 모습.

정오에 가까울 때, 천장에 걸린 자음 하나 떨어져 탁자 모서리를 정확히 찍었다. 컵의 수면도 그 때 한 지점에 툭 끊기고, 잘린 가장자리가 금으로 미끄러져가 납작하게 달라붙는다. 테두리 얇은 떨림이 방의 벽들을 빠르게 돌아 한 바퀴 치고, 공기는 그 떨림을 쳐다만 보고 있다.

잠잠해진 틈으로 주머니가 입을 푼다. 낱알들이 낮게 튀었다가 가까운 곳에 곧바로 멎고, 먼저 멈춘 하나가 길쭉한 그림자를 기른다. 다른 이들은 그 그림자를 피해서 반 발짝씩 물러서며 한 줄을 비워 길을 만든다. 손가락이 그 빈 줄 위로 지나가다 말 없이 기름만 남긴다. 기름의 가느다란 빛이 늦은 낱알 하나를 불러들인다.

헛소리를 시작하니 바람도 방을 스친다. 커튼은 주름의 방향만 바꿔 나사머리를 가볍게 건드리고, 머리를 맞은 행인은 반 바퀴의 생각을 하다 만다. 창틀은 짧게 떨고, 이내 가라앉고, 떨림의 끝이 벽을 타고 건너가 다른 금을 한 번 더 만지고 멎는다. 금들은 서로의 이름을 잊은 것만 같다.

해가 조금 내려앉으면 침대의 스프링이 단 한 번만 솟는다. 누운 이는 없다. 솜은 천천히 한 쪽으로 모이고, 모서리는 약간 기울어 나무가루를 몇 알만 일으킨다. 가루가 모여 만든 흰점 하나가 숨을 배울 듯 미세하게 부풀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납작해진다.



39_z 2025.12





그늘이 길어질 무렵, 그림자는 벽의 금을 덮치지 않고 그 옆을 따라간다. 작은 벌레가 천천히 지나가며 아주 얇은 궤를 하나 긋고, 궤는 마르자마자 보이지 않는 두께를 남긴다. 그 두께만큼 바닥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발끝은 그 경계를 외워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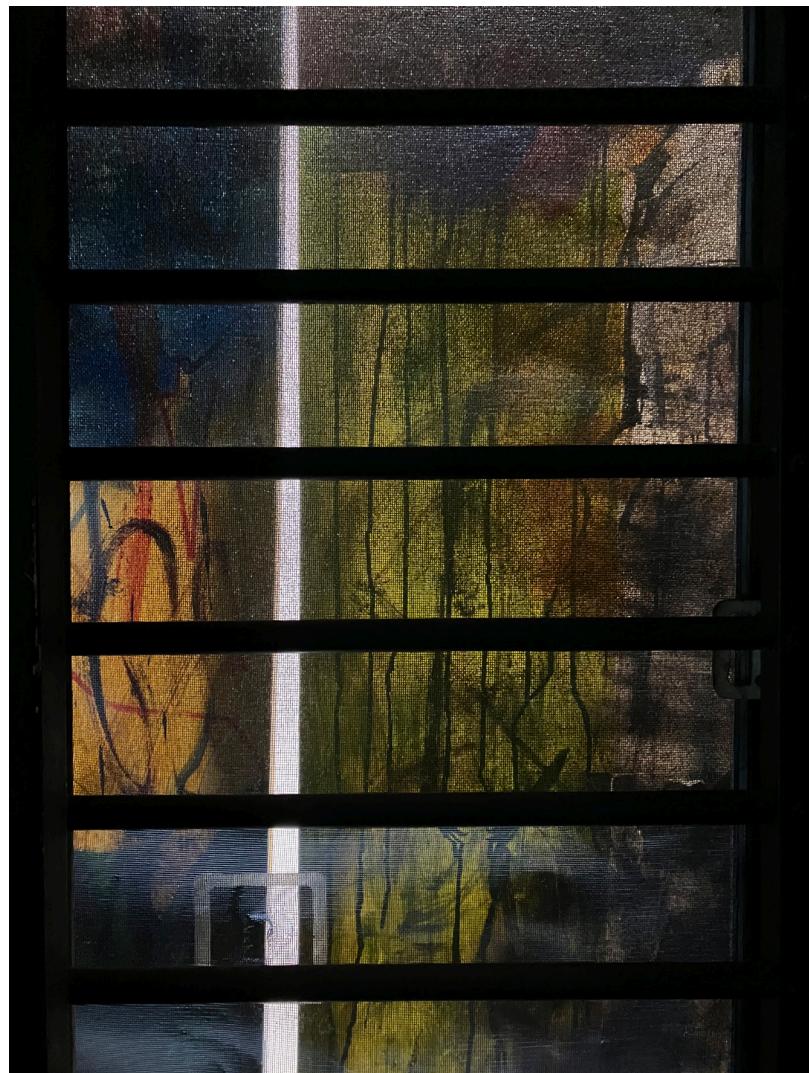
황혼이 들어서면 경첩이 밤새 굳은 기름을 밀어 올린다. 방울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 바닥을 찍고, 점과 점 사이에서 발가락이 살짝 걸린다. 걸림은 짧지만 몸 전체의 템포가 한 번 낮아진다. 문틈의 빛이 유리처럼 얇아졌다가, 곧 다시 보풀처럼 펴진다.

오래 붙은 테이프는 가장자리를 아주 조금만 들준다. 그 좁은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 접착을 분해하고, 테이프는 소리 없이 떨어져 검은 테를 남긴다. 아무도 밟지 않아도 테는 천천히 변진다. 번짐이 방의 중심을 조금 옮긴다.

한 번의 고요 뒤, 컵 테두리의 물고리가 번쩍 치솟아 창틀의 나사머리에 반짝임을 옮겨 붙인다. 나사가 미세하게 미끄러져 짧은 비명을 흘리고, 그만큼 창틀이 비틀려 커튼 밑단이 바닥을 갈아낸다. 끊긴 실밥 하나가 허공에서 한참이나 흔들린다. 빛은 그 흔들림을 한동안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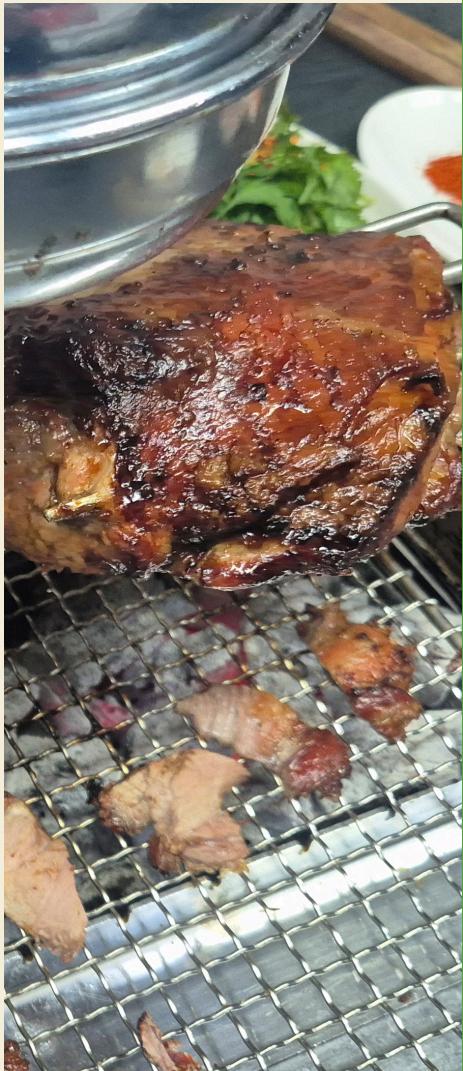
저녁, 발목이 앞으로 던져지고 무릎이 뒤늦게 따라붙는다. 바닥의 얇은 피막이 울고, 울림이 문 쪽 벽지의 붙임을 살짝 들어 올린다. 뒤집힌 종이의 새 면은 아무 장식 없이 곰팡이를 받아 적고, 그 먹은 즉시 눅진해진다.

밤의 깊은 구간, 침대의 모서리가 스스로 꺾여 들어가며 직선을 포기한다. 꺾인 선을 따라 솜이 밀려나 속이 비어 보이는 구멍이 하나 생기고, 손은 그쪽으로 갔다가 공기만 가르고 돌아선다. 갈린 공기에서 차가운 냄새가 솟아 커튼의 주름 한 칸을 접어 넣고, 방의 호흡이 아주 조금 바뀐다. 



39_z 2025.12





양다리구이.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주로 중국인으로 이루어진 중국스러운 동네와 크게 멀지 않았었다. 당시 가리봉 및 신대방 등은 중국인 동네로 꽤 자리잡은 상태였고 덕분에 양꼬치 같은 음식들을 일찍 접한 기억이 난다. 얼마전 송년회로 인해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몇 년 만에 어릴 적 살던 곳을 방문하였다. 대로에서 골목길 하나로 들어갔을 뿐인데 사방에 한자어가 병행 표기된 간판들이 보였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묘했다.

아무튼 양다리 구이 전문점이란 곳을 들어갔다. 커다란 양다리가 꼬치에 꽂혀 숯불에 자글자를 구워지고 있었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느낌이긴 했는데 징그럽거나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고, 돼지 족발을 보는 듯하였다. 먹는 방법이 재밌는데 포크와 칼을 이용해 고기를 썰어, 그 고기들을 좀더 숯불에 구운 다음 먹는 것이다. 아무래도 통째로 구울 때는 골고루 익혀지지 않은 탓일 거다.

양고기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이 집이 잘 조리해서인지 양다리라는 부위가 그래서인지, 아니면 굽기를 잘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다만 맛은 다리라는 부위 탓인지 족발과 상당히 유사했다. 오히려 쪼란이나 기타 향신료로 인해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을 뿐 꽤 친숙한 맛이었다. 남자 3~4명이서 다리 하나로 꽤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 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12 / 39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 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오종원, 이채연, 한랑윤씨